

예배 WORSHIP

September 1,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여호수아 10:1-14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447장 / 오 신실하신 주 <small>(통일찬송가 393장)</small>
헌신과 나눔	봉 헌 / 유덕하 집사, 홍정임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살과 세상으로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섰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오정은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37:1-38:8
성막의 공사

오늘의 찬양

해 같이 빛나리 (김석균 곡 / 다윗과 요나단 노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고 주님의 사랑을 적하며 주님이 오실때 아름다운 저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할지어다하고." (마태복음 25:21)

또한, 우리의 섬김과 충성은 성경에서 가르치듯이 "함께" 나감으로써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두사 램이 한 사람보다 나움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9-12)

찬 주간의 기도

"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하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단단히 하나 되고 강건한 사역을 위해 모두가 새롭게 헌신하기를 결단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너의 믿음이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너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리라.”

찬양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을 때, 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은 현재진행형이다. 오늘 구원을 받았고, 내일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게 되며, 그 후에 교회의 일원이 된다. 곧 주어진
 능력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또 이럴 때, 우리 모두는 많은 시험을 받는다. 또한 스스로 압도당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 우리가 놀릴 때,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김에
 연약함과 피로를 느낀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멈춘
 적이 없다.

여러분은 삶의 이같은 지점에 와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가? 다시 한 번 하나님을 향해 불 타고 싶은가?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아시고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3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심을 깨달으라.
 계시록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열정을 갖고 있는지 아신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것도 아신다. 우리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얼마나 감추거나 부인하려고 했는지는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를 감출 수 없다.

2. 마음의 솔직한 상태를 인식하라.
 계시록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마음의 솔직한 상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 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스스로에 대해 정직해져야 한다. 왜 우리의 열정이 사라졌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좇는 것을 막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집중을 가져가버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과 힘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도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에 깊이 빠져 있는가?
 비탄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정직하게 죄를
 인정해야 한다. 오직 진리 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3.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 열정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회개하고, 이를
 돌이키면 된다. 이처럼 매우 단순한 것이다.

친구들이여, 여기는 어떤 기적이 없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미친듯이 기도해 줄 어떤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그분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선택하길 기도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2016.11)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섬김의 교역을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제의 식탁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9월은 기도의 달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님의 총명한 능력을 받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1.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 **전 교인 수련회** 노동절을 맞아 교회에서 수련회를
 오늘 오후 5:00 부터 내일 오후 2:00 까지 가집니다.
3. **새로운 도약과 비전** 섬김의 교회 다섯째 해를 맞아 열정이 회복되고
 사역의 열매가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4. **Sagar 전도사 사임** 안수와 Indian 교회 개척을 위해 중고등부 사역자로
 섬기던 Sagar 전도사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동안의 헌신에
 감사하며 학업과 사역을 축복합니다.
5. **여름학기 주일성경공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Youth 사역자 청빙**과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일 축하♥ Sagar (26) Ellyn (27) 이정운 (30)

예배와 양육 / 고제와 나눔 / 치유와 회복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
도
제
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누)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총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
배
섬
김
이

주일에배기도	9/1	9/8	9/15	9/22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정총렬목사	고순계전도사
금요일배기도	9/6	9/13	9/20	9/27
	오정은집사	최선욱집사	구은강집사	구 민집사
주일헌금위원	9/1	9/8	9/15	9/22
	유덕하집사/홍정임집사 구 민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9월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 / 여호수아 9:1-27**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간다. 예컨대, 전공, 배우자, 직업, 유학, 이민과 같은 결정이 있다. 그러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중요한 선택과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겠다는 결단과 선택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이 그러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사는 인생,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냐는 둘 중 하나이다.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으로 언약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누리자.

신실하신 하나님 / 여호수아 10:1-14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에 대한 히위족속의 반응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반응?

여호수아의 기도와 그 이유는?

기도, 말씀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 믿음이 더 견고하며 강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 여호수아 10:1-14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눕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은 평화조약은 다른 족속들에게는 배신이었습니다. 이에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위협에 처한 기브온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승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밤새 진군한 여호수아 군대는 아모리 연합군을 기습했고 적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그들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때,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아모리 연합군을 멸하시기 위하여 내리시는 우박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그들이 도망을 가자,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막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모리 연합군을 모조리 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한 나절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제껏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태양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달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지구가 아주 천천히 돌았던 것입니다. 시간을 번 여호수아는 아모리 연합군을 모조리 멸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과 순종이 함께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간구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합니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합니다.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한다면, 또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 영이 장 된 길에 내가 번사에 잡히고 감격하기를 간구하노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September 1,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기도의 달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세상오만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를 나는 만네